

## 소공동체 소식

이 페이지는 각 구역이나 신심단체가 새로운 정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꾸미는 주요 사랑방입니다

#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머릿글 / 채희백 바오로 평신도협의회 회장

##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1992년 뉴저지주의 에디슨 지역에서 이루어진 공동체 로써 오로지 하느님께 대한 신앙 하나로 이민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힘을 모아 교회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평협은 주임 사제의 뜻을 받들어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친교를 나누며, 신앙 생활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가 이민 생활의 바쁜 시간을 쪼개어 서로 도우면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비드 팬데믹 사태도 적극적인 부스터 백신 접종 이후 부터 서서히 정상 복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우리 공동체는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꾸준히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 다소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있지만 하느님과 함께라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에디슨 한인 공동체는 정화되며 나날이 하느님의 나라로 가까이 다가간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후손들에게 비치어 그들의 신앙에 좋은 표상이 되어 나타나길 주님 안에서 희망합니다. 평신도회장인 저도 오롯이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겠다는 초심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 봅니다.

“- 주님! 비록 저희가 많이 부족하나 기도하며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르고자 하오니 이끌어주소서! -”

(2022년 부활절을 보내고)

### 2022 주요 행사 안내(예정)

COVID 팬데믹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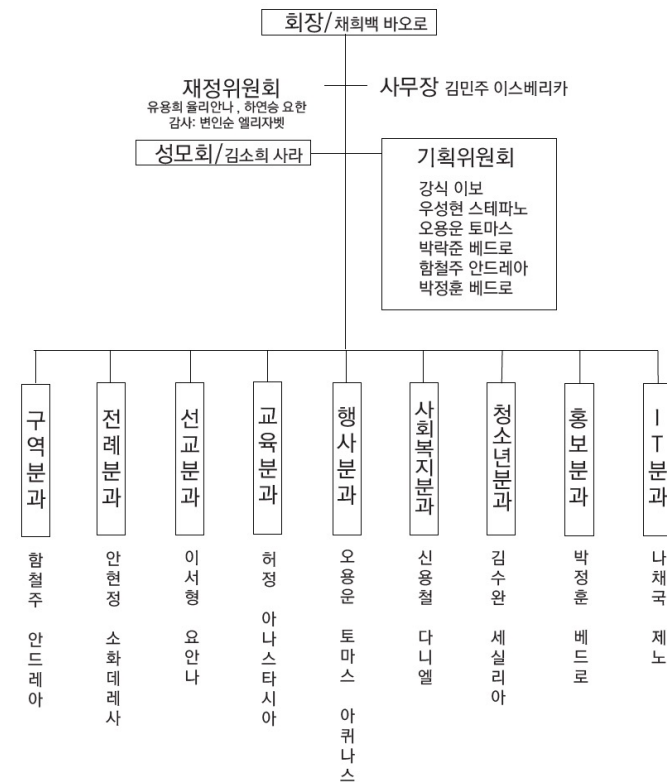
- 어머니 날 축하 행사(5월 8일)
- 하계 야외미사 추진 (or 추계 야외미사 [체육대회])
- 3개 분당 친선 골프대회(9월5일)
- 추석 한가위 대잔치(9월 11일)
- 본당의 날 기념행사(한/영 합동):9월 25일 or 10월2일
- 성탄절 특별행사

### 전례분과에서 알리는 미사 예절

- 미사 전 휴대폰의 전원을 끄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 예물 봉헌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성체를 모시고 바로 자리를 떠나거나 미리 퇴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미사 종료는 퇴장 성가가 완전히 끝날 때 까지입니다.

### 알아들으시다 -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통칭 사목회라 불리지만 평신도 사도직협의회가 정식 명칭입니다. 짧게 평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매해 임명직으로 구성되며 회장을 비롯해 17명의 위원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개의 담당분과를 두고 신속, 심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구성 형태로 2021년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한눈으로 보는 조직도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행동이 바로 봉사입니다.” -마더 테레사

부활  
제 3주일

2022년  
5월 1일



###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 Tel: 732-356-1037  
# Email: office@edisonkcc.org  
# 근무시간:화~금 10am~3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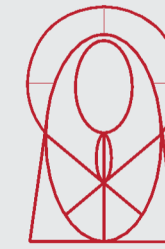
<http://www.edisonkcc.org>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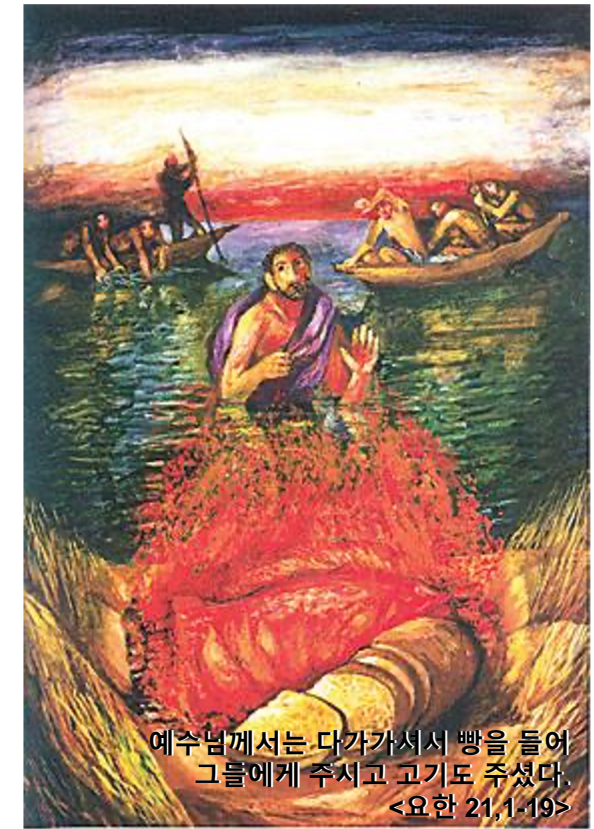
분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  
<요한 21,1-19>

### <이번 주 전례 안내>

# 제2독서 요한 묵시록 5,11-14

# 복음환호송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복음 요한 21,1-19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

주간 전례 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5/02/22	사도행전 6,8-15	요한 6,22-29
화요일 05/03/22	사도 바오로 코린토 1서 15,1-8	요한 14,6-14
수요일 05/04/22	사도행전 8,1-8	요한 6,35-40
목요일 05/05/22	사도행전 8,26-40	요한 6,44-51
금요일 05/06/22	사도행전 9,1-20	요한 6,52-59
토요일 05/07/22	사도행전 9,31-42	요한 6,60-69
일요일 05/08/22	사도행전 13,14.43-52	요한 10,27-30
	요한 묵시록 7,9.14-17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홍사충(베로니카)	- 먼로구역
•김진철(요한)	- 가족
•김경희(수산나)	- 가족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박병희	- 김 스텔라
•김영규, 박귀자	- 이윤경(비르짓따)
•장인석(미카엘)	- 가족
•김병학(바오로)	- 가족
•김명자(헬레나)	- 박상배(스테파노) 가족
•이상숙(마리아)	- 가족

**생미사** - 봉헌자

•유용희(울리아나)	- Cliff & Carol Rockwell
•전광수(프란체스코)	- 김종화(아가다), 손흥구(바오로), 최현지(안토니아)
•전옥주(글라라)	- 이대우(베드로) 가족
•김옥전	- 김태경(카타리나), 신용철(다니엘)
•염은미(클라라)	- 가족, 신용철(다니엘)
•한지희(미카엘라)	- 최정원(레지나)
•한제나(테오도라)	- 한 안나 가족
•성나희 가정	- 이막동(아네스)
•이경수 가정	- 이막동(아네스)
•김동근(사도요한)	- 송진영(마리스텔라)
•오채영(크리스티나)	- 송진영(마리스텔라)
•추민진(마틸다), 유정원(제임스) 첫영성체 축하	- 주일학교 자모회, 한지혜(크리스티나), 썸머셋 구역
•You, Emmanuel 첫영성체 축하	-가족

**주일 헌금**

미사 참여 143명	합계 : \$2,313
2차헌금 (유틸리티)	합계 : \$600

**감사 헌금**

최정원(\$200)	전광수(\$100)
------------	------------

**교무금 납부 안내**

채희백(5-6)	양영길(5-6)	김현걸(1-4)
이호용(4-5)	염기선(4)	서영원(5-6)
최율리오(4)		<b>합계: \$1,740</b>

**공지사항**

- # 2차헌금
- 5월 1일: Catholic Relief Services 단체 지원
- 5월 8일: 유틸리티

- # Mother's Day Mass Remembrance
- 5월 8일 어머니날 영적선물로 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5월 1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 첫영성체 예식 안내
- 5월 1일 (주일) 첫 영성체를 받은 Katelyn Trzepla, Jacob Shallop, James Yoo, Minjin Chu 4명의 학생들을 위해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기획분과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1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2022년 성모의 밤 행사
- 일시 및 장소: 5월 14일 (토) 저녁 7시 성당

-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15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반석회 야유회
- 일시 및 장소: 5월 19일 (목) 11시 Roosevelt Park
- 주소: 151 Parsonage Rd, Edison, NJ 08837
- 차편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석회 임원분들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점심과 음료는 반석회 회장님과 임원이 제공하오니 개별 식수는 각자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 # 사물놀이 팀 개강
- 일시 및 장소: 5월 21일 (토) 오전 10시, 친교실
- 준비물 : 장구와 받침대, 팽과리, 징
- 기존 단원 및 신규 단원 환영
- 문의 : 정길예(프란체스카) 352-682-2525

- # 제 78차 미동북부 ME 부부주말
- 일시: 5월 28일 (토) 저녁7시 ~ 30일(월) 오후 5시
- 장소: 헌팅턴 수도원, 롱아일랜드
- 신청: 미동북부 대표 김정현 요한, 류정아 아네스 부부 917-415-4200, johannesMENY@gmail.com
- 5월 1일 미동북부 대표 부부가 본당을 방문하여 미사 공지사항 시간 중 짧은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전광수(프란체스코)	

**제 1독서 <사도행전> 5,27ㄴ-32.40ㄴ-41**

그 무렵 대사제가 사도들을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 의회 앞에서 물러 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요한 묵시록> 5,11-14**

나 요한은 어좌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에워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해된 어린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하고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요한 복음 > 21,1-19**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래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대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겹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 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물에서 백 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물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물으로 끌어 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쉰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매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매어 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